

문학 독서 방법의 上位的 이해

朴 寅 基

1. 독서 개념의 거시적 조망

독서 행위를 陶冶的 教養의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독서 자체를 하나의 '문화'로 바라보는 관점은 일종의 거시적 관점이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은 텍스트 이해의 인지적 과정(cognitive process)을 문제삼는 '독해(reading comprehension)'보다 상위적 인식에 해당한다. 독해가 텍스트 내의 정보들에 미시적으로 대응하는 독해자의 정보 처리 능력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독서는 이러한 구체적 독해의 集積이 한 개인의 '지식 및 정서 체계'에 작용하는 총체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야나 문화를 표상하는 거시적 관점의 독서는 한 개인의 지적 퍼스낼리티를 형성하는 기제이며, 문화적 주체로서의 한 개인의 지적 결정력과 문화적 교섭력을 확충하는 바탕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독서인들이 모여 사는 사회(일종의 '독서 사회'라 명명할 수 있다)의 정신적 동력이 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정신문화적 지향(mentality)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문학 독서는 본질상 도야적 교양으로서의 독서의 성격을 띤다. 도야적 교양의 반대 자리에 실용적이고 사무적인 정보를 위한 독서가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두고 보면 이는 자명해진다. 문학 독서가 가지는 도야적 교양의 성격은 독서 방법에 관한 모종의 示唆를 제공한다. 우선 문학 독서

는 어떤 자율성의 원리가 주조를 이루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소위 '自己教育'의 상태를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문학 독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학 독서는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 부여가 있어야 한다. 이는 독서 주체가 텍스트에 단순히 함몰되지 않고 자신의 독서 행위를 하나 더 높은 차원에서 상위 통제하는 태도적(또는 문화적) 맥락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때의 가치 부여란 '독서 행위' 자체가 도야이고, 독서의 결과로 얻어지는 '인격화'가 곧 도야라는 인식에 닿아 있는 것이다.

문학 독서에서 독서 주체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독서 행위에 대한 가치 부여'를 지향해야 한다. 이 양자는 문학 독서의 방법을 상위적으로 통제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비록 기술적 수준의 독서 방법을 강구할 때라 하더라도, 바로 이러한 상위적 전제를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날 단순한 흥미와 말초적 즐거움에 함몰하는 독서 경향을 독서 방법 차원에서 변별해 내기 위해서라도 독서 행위의 자율성과 독서 행위에 대한 적극적 가치 부여는 독서 방법론의 중요한 전제 사항이 되는 것이다.

독서 행위의 자율성과 독서 행위 자체에 대한 가치 부여는 독서의 밀도를 높인다. 즉 개인 차원에서는 독서의 내적 동기가 강화되는 것이며, '독서 사회' 차원에서는 독서 문화의 결(texture)을 강화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독서의 과정이야말로 지적 긴장을 수반하는 '정신적 高揚'의 장면을 창출해 나간다.

문학 독서는 본질적으로 '울림'의 독서이다. 이 점 또한 문학 독서의 거시적 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념이다. 여기서의 울림이란 대상에 대한 단순한 공감과 共鳴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 문학 텍스트 내의 세계가 일차적 언어 정보로 독자에게 수용되면서 동시에 독자의 삶의 세계와 조응하는, 그리하여 무수히 많은 상징의 층위로 의미가 재생되는 그러한 기제가 바로 '울림'의 기제인 것이다. 여기에는 인지적인 것과 정의적인 것이 경계 없이 교섭하고, 허구와 사실이 상상력 속에서 서로 교차하

여 ‘문학적 진실’을 빚어내게 하며, 감정의 이입과 이격이 감상의 회로 속에 병존하기도 한다. 또한 감상 과정에서 주관성이 상호작용하기도 한다.

문학 독서는 부단히 의미의 확성을 추구하되 동시에 무수히 많은 불확정의 모습을 동시에 생성해 내는 독서이기도 하다. 그러한 불확정의 생성을 독자가 열려진 화두로 지속시키는 것이 바로 ‘올림’의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학 독서의 이러한 올림의 양상은 현재 규명된 인지심리학적 과정으로는 포착되기 힘든 면이 많다는 점에서, 독해의 미시적 접근만으로는 그 설명이 한계를 가진다. ‘올림’의 작용에는 가시적으로 통제하기 힘든, 매우 불투명하고 섬세한 ‘정서’라는 변인이 깊게 관여하고, 이른바 삶의 총체성으로 일컬어지는 올림의 메커니즘이 단순한 언어 정보 처리 차원의 인지 메커니즘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 독서의 메커니즘을 파악함에 있어서 기존의 인지심리학적 성과를 염두에 두면서, 더욱 거시적 조망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문학 독서의 방법을 설명적 기술적 언어로 정리하는 데 전체적 균형과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 이는 문학 독서 방법에 관한 상위 논리 구축의 토대를 점검하는 필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문학 독서의 방법이 말초적 ‘技術’의 수준이 아닌 ‘認識’의 수준을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바른 技術을 제시하는 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문학 독서를 위협하는 포스트모던한 현상들을 독서 방법 고찰의 고려 요인으로 넣는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독해 활동을 둘러싸는 외부 환경과 인식을 모두 포괄하여 독서의 전체상을 본다는 의미가 된다. 또 그런 차원에서 문학 독서의 방법적 원리를 모색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2. 거시적 독서 개념의 방법적 示唆

앞에서 살펴 본 문학 독서의 거시적 조망은 ① 자율성에 기반하는 독서 ② 능동적으로 가치 부여가 되는 독서 ③ 올림의 기제를 극대화하는

독서 등으로 요약된다. ①, ②가 문학 독서의 태도적 측면 내지는 당위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③은 문학 독서의 본질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①, ②는 문학 아닌 교양 독서 일반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지만, 이 항목이 내포하는 방법적 시사를 문학 독서와 관련하여 따져 들어가면 문학 독서만이 가지는 개별적 원리를 하위 수준에서는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서 행위의 자율성이 문학 독서 방법에 시사하는 점은 우선 문학 독서가 특별히 어떤 실용적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실용으로부터의 자유란 사실 얼마나 지적으로 해방되는 공간인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조절하기 힘든 방만한 공간인가이다. 여기에 '自'와 '律'의 두 개념이 문학 독서의 방법적 상위 원리로 준거하게 되는 것이다. 실용적 요구로부터 벗어났을 때, 한 개인의 정신적 활동이 어떤 지향을 보이는가에 따라 우리는 지성적 멘탈리티와 반지성적 멘탈리티를 구분할 수 있으며, 생산지향적 문화 주체와 소비지향적 문화 주체를 변별할 수 있으며, 省察的 自我와 放逸의 自我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자리에 문학 독서의 의미가 부각되는 것이다.

실용적 범주가 아닌 독서라고 해서 모두 바람직한 문학 독서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문학 독서도 지성적 지향과 문화적 생산성과 성장적 효과를 꾀하려면 그 나름의 내적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 상업적이고 소비적이고 대중적인 mass culture의 천박한 작용에 지나지 않는 읽을거리들이 일상의 장면 어디서나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학 독서의 내적 통제력과 독서 행위에 대한 메타 인지(이것을 '律'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문학 독서 방법의 중요한 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구체적 읽기 방법의 정교화에 앞서는 방법적 원리가 되어야 하며, 더구나 발달기 청소년들의 문학 독서에서는 독서 방법상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른바 전통적 명명법에 의하면 '좋은 책과 나쁜 책의 구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책에 대한 독자들의 감수성을 유형화,

개별화함으로써 독서 방법의 정교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좋은 책과 나쁜 책을 정태적이고 경직된 구분법으로 주입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보다는 해당 문학 텍스트와 독서 주제를 둘러싸고 있는 심리적(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역동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독서 능력과 감수성에 따라 내적 통제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적 현실과 부합하는 독서 지도(방법)의 발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불량도서 리스트를 절대화하여 모든 이에게 공지하는 듯한 방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문학 독서의 자율성, 즉 내적 통제력이 형성되고 작용하는 모델을 설명하거나, 내적 통제력의 작용 유형을 범주화하여 제시하는 작업 등이 모두 문학 독서의 방법을 구체화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실용적 독서의 공간에서 탈실용적 독서의 공간으로 넘어올 때, 독서 주체가 자아를 생산적이고 성찰적으로 통제하는 힘이 문학 독서의 한 방법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학 독서의 자율성 원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점검될 수 있으며, 동시에 방법적 타당성을 시사해 준다. 그것은 문학 텍스트가 존재하는 방식에서 발견된다. 문학 텍스트가 존재하는 방식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자유롭고 덜 통제적인 맥락을 가진다는 점이다. 단위 작품 그 자체가 하나의 자족적 소우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문학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학 작품은 학교 교육에서의 커리큘럼 속에 존재하는 경우 외에는 어떤 현실적 프로그램의 맥락 속에서 의도적으로 조직되거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저 개별 작품 단위로 창조되고 소통되고 수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 이러한 모습이 가장 자연스러운 문학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문학의 존재 방식이 이러하다면 문학을 수용하는 것도 이에 상응되는 방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학 작품의 존재 방식이 가지는 자유로움과 문학 독서의 자율성은 내적 상동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문학 독서 방법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문학 작품에 다가가는 과정에 어떤 강제성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강제성의 배제는 문학 독서의 지도 방법이 될 터이고, 독자 쪽에서 보면 문학 텍스트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하나의 방법적 시사가 되는 것이다. 즉 문학 읽기에 대한 내적 동기를 강화해 주는 것(또는 내적 동기를 스스로 강화하는 것), 그것이 문학 독서의 방법으로 대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것은, 문학 지식이나 문학 이론이 학생들의 문학 독서 동기를 강화해 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엄밀하게 말하면 문학 지식의 肉化(incarnation)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육화 정도를 결정짓는 것은 문학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 방법의 질적 측면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문학과 직간접의 친연성을 가지고 있는 인접 문화 영역에서의 여러 현상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문학 읽기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기의 생성을 강화하는 기세와 더불어 동기의 적극성이 문학 독서의 구체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요소를 문학 독서 방법의 단초적 원리로 삼음직하다고 하겠다.

문학 독서 행위의 자율성은 또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도 합리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개개의 문학 작품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데 그것도 '총체성'으로 반영한다는 점이다. 총체성이란 주지하다시피 삶의 다양성과 삶의 구체성과 삶의 구조성을 형상화된 언어로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체성의 국면을 독서의 상황에 대입하여 본다면 독서 자체도 일종의 삶에 대한 총체적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점은 다른 영역의 독서와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즉 다른 영역의 독서는 그 토픽이나 내용이 일정한 부면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삶과 관련해 볼 때 다른 독서는 모두가 부분적 관심이나 언급으로 국한되는 것이고, 그것은 부득이 '수렴적 독서'의 모습을 띠는데 반해서 문학 독서는 '확산적 독서'의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다.

문학 독서가 '독서 행위에 대해서 각별한 가치 부여'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독서 방법상의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가. 물론 이때의

가치 부여는 독서자 자신에 의한 것으로서, 독특한 개성을 띠는 것이다. 문학 고전은 무조건 가치 있으므로 당연히 독서 행위도 가치있는 것이라는 인식과는 다른 것이다. 독서를 위해 작품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이미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한 상위적 통어력과 정체성을 나름대로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문학 독서에 대한 개인의 구체화된 신념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일종의 독서 이데올로기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치 부여 행위는 '독해'의 인지적 과정 속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듯하다. 그런데 이것은 문학 독서 일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할 구체적인 문학 작품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가치 부여'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문학 독서의 구체적 경험을 지금까지 축적함으로써 가능해지는 문학 경험의 일반화(추상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schema 이론과 관련하여 설명한다면 문학에 관한 일종의 상위 스키마(episodic knowledge에 대한 semantic knowledge)의 형성 및 작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문학 독서가 우발적 소비적 만남이 아니라, 의도적 생산적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치 부여'의 과정(능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능력)을 독서 방법의 측면에서 전이시키면, 곧 문학 독서의 전략(strategy) 개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학 독서에서 '독서 행위에 대한 가치 부여'는 독서 과정의 지적 난관을 지적 즐거움의 필요 과정으로 수용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단순한 지적 호기심만으로는 독파할 수 없는 문학 고전들이 얼마나 많은가. 토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논문 읽기에 맞먹는 인지적 부담을 아주 지루하게 요구한다. '독서 행위에 대한 가치 부여'가 없이는 성공적 독서를 기대하기 어렵다. 포스트모던한 시대에 즉흥적 수요(on demand)의 代價으로 문학이 선택되는 상황일수록 '가치 부여'의 원리는 방법적 중요성을 띤다. 문학 독서물의 교육적 기획이나 출판에서 이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더욱 정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물론 고답적 교조주의의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요즈음 청소년들의 현실적 감수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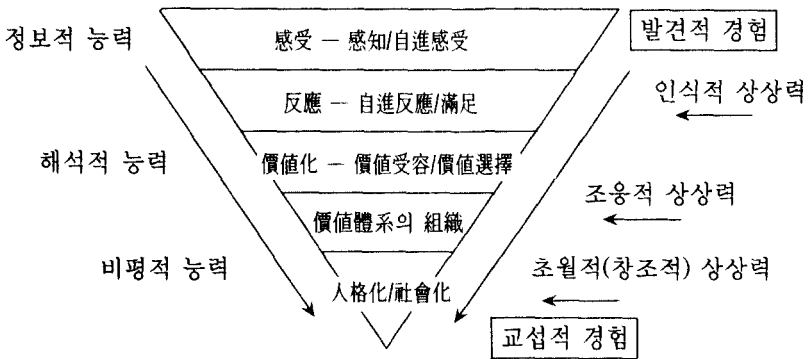
고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학 독서에서 '독서 행위에 대한 가치 부여'는 단순히 심정적 차원의 유발만으로는 한계를 가지리라 생각된다. 심정적으로는 가치를 부여하고 독서에 임했으나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나 의미 구성이 용이치 않게 된다면 그 독서는 다시 출발점으로 회귀하고 말 것이다. 그저 제목과 작자와 연대를 기억하고 마는 수준이 될 것이다. 독서 행위에 대한 가치 부여는 초기에는 심정적 태도에 의탁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문학 독서가 조금만 진행되면 미숙한 대로 비평적 과정과 흡사한 지적 훈련의 축적을 통해 '가치 부여'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작품 해석의 網을 엮어 낼 수 있는 기본적인 문학의 문법을 아는 것과 '독서 행위에 대한 가치 부여'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문학의 문법을 안다는 것은 문학 이론의 이성적 논리를 포함하여 문학 독서의 경험적 논리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보면 문학 독서의 경험누적은 그것 자체가 문학 독서의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당히 거칠기는 하겠지만 학생들의 문학 독서량을 지표화하거나 유형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가치 부여' 수준을 짐작케 하고, 이에 맞추어 독서 방법을 지금보다는 개별화하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 문학 읽기 장면에서 '가치 부여'는 좁게 보면 그 해당 문학 작품 독서 전략의 根幹이 되는 것이며, 그 독서가 끝났을 때 독서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의 준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가치 부여의 구체적 동기 및 내용과 독서 후의 가치 점검을 쓰기 활동과 연결시킬 수 있으면 이는 매우 밀도 높은 문학 독서의 방법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읽기 활동은 읽기 그 자체의 충실도를 위해서도 쓰기 활동과의 연계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문학 독서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방법상의 묘를 발휘하여 이렇게 연계되는 쓰기 활동이 별다른 부담없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고안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3. 문학 독서의 과정

모든 발달의 과정을 규정하는 일반 공리에 ‘개통 발달(발생)은 개체 발달(발생)을 반복한다’는 것이 있다. 문학 독서의 발달 과정도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의 모델을 상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한 개인에게서 문학 독서(능력)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과, 한 작품을 읽는 과정 속에서 문학 독서의 수용(내면화)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동적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의 관점에서 문학 독서의 과정을 논할 때는 이 양자를 모두 포괄해야 할 것이다. 물론 발달 심리학에 의존한다면 문학 독서(능력)의 발달 단계를 연령이나 학교급에 따라 지표화하는 접근이 어느 정도는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前述한 대로 문학 독서의 ‘울림의 기제’를 온전히 드러내는 과정 모델을 보이기 위해서는 문학 독서의 총체적 면모가 반영된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문학 독서 능력도 독서 주체의 인지적 정의적 능력을 기본적으로 상징한다는 데서 다른 영역의 발달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 이들 능력을 토대로 문학 독서의 과정이 점점 심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 독서에서의 발달 구조의 기본 축을 인지적(이때, ‘인지적’

이란 말은 앞에서의 쓰임과는 달리 '정의적'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쓰인다.) 영역의 축으로만 고정시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문학 독서가 일종의 심미적 독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보의 획득보다는 '울림의 인식'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문자적 해독을 문제삼는 사실적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곳에서 문학 독서의 출발이 놓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학 독서의 전체 과정은 인지적 발달을 기본축으로 하기보다는 정의적 발달을 기본축으로 하면서 인지적 발달의 맞물림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학 독서의 정신적 과정(mental process)을 지나치게 인지적 기능의 類目으로 상세화하여 설명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 문학 독서에서 텍스트의 수용 및 내면화 기제가 삶의 총체적 이해라는 현상과 대응되어 매우 탄력적 방식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학 독서의 과정에서 수용자의 정의적 반응과 解釋 방식, 그리고 감수성 스타일이 텍스트 이해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문학 독서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용자의 '상상력'이란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의 융합에서 오는 정신 작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문학 독서의 과정이 독자 반응적 현상학의 요소를 배제할 수 없음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학 독서의 과정(발달)은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의 계열성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능력과, 상상력 개입의 측면과, 문학 독서에서 나타나는 경험의 심화 구조를 모두 포괄하여 앞의 그림과 같이 구조화할 수 있다.

<그림>은 정의적 발달 과정인 <감수-반응-가치화-가치체계의 조직-인격화>의 축은 인지적 발달 과정인 <정보적 능력-해석적 능력-비평적 능력>의 축과 맞물리면서, 상상력 및 문학 경험의 내면화 수준을 구조화하여, 문학 독서의 발달적 과정을 보여 준다.

다음에는 문학 독서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독자의 심리적 과정을 살펴보자. 문학 텍스트를 읽는 동안 독자의 심리적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볼 수 있다. 그것은 각각 ① 텍스트 내적 세계에 대한 감정

이입적 해석의 과정, ② 주관성의 교차를 통한 조절과 동화, ③ 정신의 질적 고양 등이다.

텍스트 내적 세계에 대한 감정이입적 해석의 단계에서는 작품 세계로 독자가 자연스럽게 이입되어, 그 세계 자체를 고립적이든 연속적이든 이해하려고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의 내면화 특징은 텍스트의 빈틈(텍스트의 불확정성)을 능동적으로 찾아내는 일이다. 감정이입(empathy)은 문학 읽기의 발생적 요소로서, 텍스트와 독자자와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단초가 된다. 감정이입은 타자(대상, 세계)의 정의적 상대나 조건으로부터 일어나는 독자의 감정적 반응이며, 타자의 감정적 상황과 일치되는 정서적 반응이다. 감정이입은 텍스트 내면화의 필수과정이며, 과정의 지속과 더불어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텍스트의 불확정 부분을 능동적으로 찾아내는 일은 독서 태도면에서 문학 읽기에 대한 성실성, 진화성을 결정하게 한다. 또한 심리적 작용의 면에서는 독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 및 지식 전반이 텍스트의 내적 세계와 왕성하게 상호교섭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텍스트의 불확정 부분이란 작가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남겨 놓은 빈틈으로서 텍스트를 대하는 독자의 상상력이 활동하는 공간이다. 텍스트의 불확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그것을 깨내는 단계에서 감정이입은 확장되기도 하고 이성적으로 극복되기도 하는데, 독자는 이러한 일련의 독서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읽기 행위 속에서 텍스트의 재구성을 시도해 나가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주관성의 교차를 통한 조절과 동화의 국면을 거치게 된다. 조절과 동화는 일찍이 피아제가 발달 구조를 설명하는 가운데 널리 알려진 교육적 작용으로, 문학 읽기의 과정에도 적용된다. 다만 조절과 동화의 작용을 야기시키는 환경이 실세계가 아닌, 언어로 형상화된 허구의 세계, 즉 문학 세계 내의 환경이라는 점이 차이를 가진다. 독자가 문학 세계 속을 소요하는 가운데 무수히 투사하고 참조하는 여러 생각들은 그 속성상 주관성끼리의 상호작용(inter-subjectivity)이며, 그것의 결과적 작용이 곧 조절과 동화의 지속적 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소설 텍스트를 우리의 자아에 알맞도록 변화(동화)시키는 동안 우리의 자아 역시 어떤 종류의 변화를 입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우리가 읽는 내용을 우리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도 텍스트 내용의 요청에 따라 모르는 사이에 변화를 겪는 것이다. 소설을 읽으면서 성공적인 주인공과 나를 동일시함으로써 대리만족을 맛보는 동시에, 우리 자신은 나의 무의식적인 욕구가 무엇이었던가를 깨닫고 반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독자의 자아 자체도 읽음의 충격을 받아 재형성과 수정, 적어도 재확인¹⁾의 기회를 얻게 된다. 다만 자아 자체가 독서의 충격을 받아 무한정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상섭의 이러한 설명은 비교적 단일한 구조의 소설 속의 인물과의 고섭을 예로 제시하고 있지만, 장편소설에서 문제되는 전형이나 세계관의 '내면화 과정' 또는 이들과의 '동화와 조절'은 더욱 다기하고 복잡할 것이다. 또 이러한 문학 독서가 축적됨으로써 나타나는 텍스트 상호성의 문제가 개입되기 시작하면 동화와 조절의 양상은 한층 더 복잡하고 다양한 층위를 드러낼 것이다.

문학 독서의 궁극의 과정에 놓이는 '정신의 질적 高揚'은 이상적 인격화의 지표를 추상적 언어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명히 부각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투명하고 잠재적인 모습을 띤다. 이 궁극의 심리적 과정이란 오랜 독서 시간의 축적과, 통제할 수 없는 여러 변인들이 多重交渉하여 이루어 내는 과정이다. 이를 Bloom식으로 말하면 '價値 複合에 의한 人格化'라고 할 수 있으며, 야우스식으로 표현한다면 '기대 지평의 종합적 확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범박하게는 문학 독서를 통하여 이념적 자아, 또는 인식적 자아를 확립하는 경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이상섭, '독자 반응 이론의 여러 면모', <자세히 읽기로서의 비평>, 문학과 지성사, 1988. p. 139.

4. 문학 독서 방법의 상위적 접근

1) 문학 작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적극화 한다.

문학 작품에의 참여 태도는 문학 독서에 대한 친화력을 결정한다. 문학 작품에 친화력 있게 참여하기 위해서 개인의 독서 감수성에 의거한 독서 목록을 준비해 보는 것도 유익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학 독서의 양적 축적을 포함해서 문학의 문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학 독법의 구체성을 텍스트 정독의 엄격성에서 구하고 있는 신비평가들의 독서관은 독자 반응 중심의 독법이 갖는 막연함을 보완한다는 데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문학 작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 공동체(비평 집단)의 비평적 성과를 연계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획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문학 텍스트와 세계와의 상호 조회(가역반응)를 기한다.

문학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텍스트가 제시하는 다양한 자료에 최대한의 적절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가설이나, 틀의 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 가설이나 틀은 현실 세계에서 빌려 온 모델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텍스트의 언어는 세계와 상호조회되는 과정을 통해 해석되는 것이다. 문학 독서 공간에서 수용 주체가 대화적 분영을 거듭하는 것도 이러한 과정의 한 양상이다. 이는 문학 독서 방법의 좋은 참조가 될 수 있다.

3) 감정 이입과 脫感情의 두 회로를 모두 경험한다.

감정이입은 문학(소설) 독서의 내면화의 필수 과정이면서, 그 자체가 전체 내면화의 지속에서는 스스로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감정이입의 구조만이 의도적으로 잘 마련된 소설이 있다면 그것은 통속성의 한 전형이 될 것이다. 감정 이입의 회로만을 차단한 내면화의 양상은 텍스트 내의 타당한 프레임(코트)의 대응을 동원하지 못하게 되고, 텍스트의 불확정 국면을 극단의 주관으로 몰입시켜, 이른바 의미의 재구성을 방해하는 파괴적 감정으로 함몰해 버리고 말게 한다. 감상 과정에서 주관의 정합성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내면화의 지속을 위해서는 감정이입으로 시작하 내면화를, 공감의 회로를 거쳐 脫感情의 회로로 이끌어 내는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작품 속으로 들어가기와 작품 속에서 나와 거리두기, 이 양자의 긴장을 독서 방법은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4) 텍스트 상호성을 적극적으로 개입, 작용시킨다.

지금 읽고 있는 특정의 문학 텍스트와 주제, 소재, 배경, 인물, 행위, 갈등, 작자, 기법, 영향 등등의 측면에서 연관을 가지는 다른 문학 텍스트와의 상호성을 최대한 살려 가면서 독서하게 한다. 텍스트간의 상호성은 객관적으로도 정립할 수 있지만, 독자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세계관이나 감수성에 의해서 형성될 수도 있다. 결국 진진된 문학 독서의 능력이란 독자 스스로 독서하는 가운데 얼마나 역동적인 '텍스트 상호성'을 구축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텍스트 상호성의 문제는 해당 작품과 관련 비평 텍스트간의 상호성도 물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호성이 높은 생체험의 경우 텍스트의 의미를 귀납적으로 강화하고, 그것을 개인의 인식 지평하에 의미화해 둔다는 점에서 상호성의 힘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 점은 특히 발달기 청소년의 문학 독서에서는 두드러진다.

5) 울림과 깨침의 수용 방식을 실제로 享受한다.

'울림'은 이른바 '감동'을 수반하는 내면화 방식의 하나이다. 감동의 현상을 설명적으로 기술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체로 심미적 인식이 개입되

면서, 대상과 세계를 예술적 형상화의 통로에 의존하여 매우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의미화하는 현상이다. 울림의 수용 방식은 독자에게 가해 오는 감상의 진원이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이라는 데 그 특성이 있다. 이는 문학 작품의 예술적 구조를 균형감 있게 향수하는 데서 오는 종합적 인식의 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깨침의 수용 방식은 일반적으로 독자의 주지적 자질에 의존하는 바 크다. 소설 텍스트를 이데올로기나 가치의 등가물로 파악하려는 관점이 강하면 강할수록 깨침에의 기대 또한 수용자의 내면화 기제 속에 크게 자리잡는다. 독자가 텍스트를 의미화하는 방식의 일종으로 볼 때, 깨침의 방식은 지적 실천을 문학에서 구하려는 독자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는 유형이다. 깨침의 방식은 세상사(자아, 현실, 사회, 역사 등)에 관한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이 문학(소설)적 관심으로 확장되는 데서 일어난다. 이 경우 독서의 적극성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 된다. 그러나 텍스트 전체의 울림에 의한 의미보다는 텍스트 내의 특정 담론이나 구체적 구절에 의해서 의미화가 시도되기도 한다. 깨침의 방식이 가지는 불완전한 독서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깨침에 의한 내면화 양상은 끊임없는 자기 수정의 가능성을 가지기도 한다.

울림의 방식과 관련되는 문학의 독법은 깨침의 방식과 대비하여 특별히 목적적이지는 않다. 굳이 말한다면 감동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서의 적극성에 우선하는 문학 독서의 본질성이라 하겠다.

6) 독서 체험의 잠복 효과를 고려한다.

문학 독서의 수용과정에서 감지되고 획득된 것이 깨침이나 울림의 양상으로 발현되지 않고, 구체화되지 않은 채, 독자의 내면에 불명료한 상태로 유지되는 양상을 '잠복'으로 본다. 잠복의 내용은 이미지의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는 명료화되지 않은 상태의 의미라 할 수

있으며, 가치나 신념으로 확정되기 이전의 태도적 자질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잠복은 언젠가는 돌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작용 개념이다. 그래서 이들은 독자의 삶의 텍스트와 어떤 식으로이든 조응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는 것이다. 긴 잠복은 수렴도가 높은 생체함과 조응되는 경향이 있다. 오랜 잠복기를 가진다는 것은 긴 인생 체험을 수렴하는 요소와 대응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짧은 잠복은 일정한 생체함과 조응 후 이내 소멸되거나, 지속은 하되 다른 내용의 잠복으로 통합 변화되는 것으로 본다. 짧음에 대한 절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짧은 잠복은 속성상 소멸과 전이를 거듭한다. 따라서 짧은 잠복의 활발한 진행과 교차는 문학 독서 수용 및 내면화를 활기있게 하는 의미 있는 현상이다.

문학적 체험의 결과가 오랜 기간 잠복되었다가 우리들의 삶을 위로하고 정서를 고양할 수 있다는 것은 문학 독서의 효용이다.

7) 확산의 가치화와 수렴의 가치화를 고려한다.

문학 읽기의 중핵 과정은 가치화의 과정이다. 이 말은 가치화가 문학 읽기의 유일한 목적이 된다는 것과는 다른 뜻이다. 교육 쪽에서 보면 가치화란 도덕 교육의 문제가 되는데, 문학의 내면화와 관련되는 가치화란, 문학 텍스트를 밀도 있게 이해하는 한 과정일 뿐이다. 문학 독서는 그것을 통해서 굳이 어떤 다른 목표를 달성한다기보다 문학 읽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가치화의 문제를 문학 독법의 상위 원리로 제기해 보고자 한다.

문학 읽기에서 가치화란 문학 작품의 어떤 지향성을 독자가 자기의 인식 체계 속에 의미 있게 포괄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의 가치란 문학 텍스트의 현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고의 경향이나 태도로서의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규범으로서의 가

치와는 거리를 가진다. 이는 문학의 인문적 가치가 인간 의식의 자유로운 확장과, 그것을 통한 유토피아 지향의 상상력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학 독서의 과정에서 가치화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확산의 방향을 추구하는 유형이고(이하 확산적 유형으로 칭함), 다른 하나는 수렴의 방향을 추구하는 유형(이하 수렴적 유형으로 칭함)이다.

확산적 유형은 왕성한 문학 탐독 행위에서 보인다. 확산적 유형은 텍스트 바깥에 있는 여러 가치들, 또는 삶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치들과는 관련 없이, 고립되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다른 가치와의 갈등을 일단 유보하는 방식으로 발생, 진행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문학 읽기과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독자가 만나는 소설 작품상의 가치화 문제를 실제의 삶의 여건에서 조용해 보지 않고, 단순히 소설이므로 선호하고 수용하는 방식이다. 삶의 경험이 유장하지 아니한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확산적 가치화 방식이 그들의 형편에 맞는 독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 지적 요구의 왕성함이 빚어내는 한 특성이기도 하다. 요컨대 확산의 가치화는 문학 텍스트 내에 독자의 시선이 포함되는 것이고, 텍스트 내에서 독자는 자족적인 자세를 취한다. 동시에 확산의 가치화는 언젠가는 수정과 조절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렴적 유형은 독자의 인식 기제 속에서 발생하고 작용하는 각 가치들이 연속적 맥락하에 놓인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한 텍스트의 독서 행위 속에 발현되고 수용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자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텍스트 바깥의 다른 가치들과 연결, 수렴되는 방식으로 가치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과 수렴의 근간이 되는 것은 물론 삶의 텍스트이다.

수렴의 가치화 과정에서는 독자의 시선이 텍스트 바깥에 있게 되고, 삶의 텍스트가 왕성하게 개입한다. 대체로 문학 독서의 경험과 삶의 경험이 많은 독자에게 적합한 독서 방법을 시사해 준다.